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2'에 출연 중인 전미도·신현빈·안은진·곽선영(왼쪽부터)이 일찌감치 차기작까지 결정하고 인기몰이에 나섰다. 사진제공 | tvN·유분컴퍼니·빅보스엔터테인먼트·블리썸엔터테인먼트

## 줄을 서시오!... '슬의생' 흥행버스 타고 스타덤

인지도 격상 전미도 OF 러브콜 쇄도 신현빈, '너를 닮은...' 주인공 캐스팅 안은진, 멜로 '한 사람만' 주연 역할 곽선영 '구경이' 등 드라마 연속 촬영

tvN 목요일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생)의 주역들이 안방극장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전미도, 신현빈, 안은진, 곽선영 등이 드라마의 인기를 등에 업고 활동 영역을 한껏 넓히고 있다. 모두 지난해 시즌1에 이어 6월17일 첫 방송한 시즌2에 출연하며 각자 주연 드라마도 잇달아 내놓는다.

●전미도·신현빈...톱스타와 주연 호흡 전미도와 신현빈은 '슬의생2'에 이어 차기작까지 일찌감치 확정해 올해 안방

극장을 꽉 채운다. 전미도는 서울대 의대 99학번 동기 5명의 일상을 담은 '슬의생'에서 신경외과 부교수 채송화를 연기하면서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2006년 데뷔 이후 뮤지컬 무대에만 서다가 드라마 주연으로 처음 출연했다. 강단 있고 온화한 캐릭터의 매력에 더해 탄탄한 연기력까지 인정받아 최근 정수기, 화장품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도 발탁됐다.

손예진과 함께 JTBC '서른, 아홉'의 주연으로도 나선다. 내년 초 방영을 목표로 8월부터 촬영을 시작한다. 30대 여성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루는 드라마의 핵심 캐릭터로 알려져 기대감을 키운다. 그는 "'슬의생' 시즌1 이후 큰 사랑을 받아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갑작스러운 인기엔 깜짝 놀라기도 했다.

'슬의생2'의 외과 레지던트 장겨울 역을 맡은 신현빈은 톱스타들의 파트너로 각광받고 있다. 연말 방영할 JTBC '너를 닮은 사람'에서 고현정과 공동 주연한다. 파격적인 처정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라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최근 송중기가 주연 자리를 검토하고 있는 새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가제)의 주인공도 제안 받았다. '슬의생2' 속 존재감도 여전하다. 병원 곳곳을 누비면서 소아외과 조교수 유연석과 로맨스도 펼친다.

●안은진·곽선영...탄탄한 주연 입지 안은진과 곽선영도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에 출연해 주연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극중 산부인과 레지던트로 출연하는 안은진은 2018년 데뷔 이후 조·단역에

머물다가 '슬의생' 시리즈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로는 쪽 주연 드라마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JTBC '경우의 수'에 이어 12월 방송하는 새 드라마 '한 사람만'을 주연한다. '슬의생' 속 톱 톱은 발랄한 매력과는 달리 '한 사람만'에서는 시한부 삶을 선고 받은 여성을 연기하며 절절한 멜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해온 곽선영은 '슬의생' 이후 안방극장에 주력하고 있다. '슬의생2'를 마치자마자 10월 새 드라마 '구경이'로 시청자를 다시 만난다. 코믹한 수사 드라마로, 이영애가 주연해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다. 조인성·한효주 등 스타들이 총출동해 내년 공개 예정인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무빙'에도 출연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여름극장가 '신스틸러들'의 향연

'모가디슈' 김소진·정만식 등 감초 역 '싱크홀' 김홍파·고창석 등 존재감 키

강렬한 개성으로 무장한 '신스틸러'들이 여름 극장가에서 치열한 경연을 펼칠 전망이다. 주연배우 못지않은 존재감을 더하며 대작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큰 힘을 보탤 주역들이다.

28일 개봉하는 '모가디슈'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관객과 시청자에게 각인된 감초 같은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한다. 김소진, 정만식, 구교환, 박경혜, 김재화 등이다.

1991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한 뒤 수도 모가디슈에 고립돼 생사를 걸고 탈출하려는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의 이야기 속에서 김소진은 대사 부인 역을 연기한다. 또 정만식 등은 대사관 직원 역 등을 맡아 위기에 놓인 절박함을 표현한다. 김윤석·조인성·허준호 등 주연배우들과 함께 제각각 다양한 개성과 실감나는 연기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재확인할 기세다.

8월11일 '싱크홀'을 선보이는 김홍파, 고창석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김홍파는 '내부자들' 등 영화와 '낭만닥터 김사부' 등 드라마를 통해 이야기의 중심을 잡으며 무게감을 더해왔다. 고창석은 특유의 코믹 연기로 관객과 친근감을 쌓아왔다.



모가디슈 싱크홀

'싱크홀'은 한순간에 지하 500m의 싱크홀로 빠져든 빌라 건물을 둘러싸고 그 안에 갇힌 이들의 분투를 코믹 감성으로 그리는 이야기. 차승원, 이광수, 김성균 등 주연들의 활약 속에 김홍파, 고창석 등은 '신스틸러'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모가디슈'의 김재화는 '싱크홀'에서도 모습을 내어 보일 예정이다.

'모가디슈'와 '싱크홀'은 모두 100억원 대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 이들은 대작의 규모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캐스팅 라인업을 구성하며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그만큼 다양한 개성으로 관객에게 친숙해진 이들의 새로운 활약에 감명받은 관객들이 시달려온 극장가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윤여정 기자 tadada@donga.com

## 스칼릿 조핸슨이 '유재석 자기님'을 찾은 이유

'블랙 위도우' 주연배우들과 인터뷰 소통 창구 사라지자 '유퀴즈' 찾아

"안녕, 자기님!" 할리우드 스타 스칼릿 조핸슨이 서툰 한국어로 영상 메시지를 건넨다. 인사를 받은 사람은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조세호이다. 이들은 조핸슨이 자신들의 별칭인 '자기님'을 언급하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연신 "실제 조핸슨이 맞나"며 제작진에게 확인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6월30일 조핸슨은 주연 영화 '블랙 위



6월30일 영화 '블랙 위도우'의 주연 스칼릿 조핸슨과 플로렌스 퓨(위 왼쪽부터)가 보낸 영상 메시지에 tvN '유퀴즈' 조세호(아래 오른쪽부터)가 깜짝 놀라고 있다. 사진출처 | tvN 방송 화면 캡처

도우'에서 호흡을 맞춘 동료 플로렌스 퓨와 함께 '유퀴즈'에 출연했다. 미리 찍어 놓은 3분가량의 영상 메시지만, 한국어 인사와 함께 영화를 소개하며 7일 개봉을 앞둔 소감까지 알차게 전했다.

이 같이 해외 톱스타들이 잇따라 한국 예능프로그램에 깜짝 출연하고 있다. 작년 연말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와 존 레전드가 각각 '유퀴즈'와 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한국 시청자에게 인사했다. 이들 모두 한국어 인사뿐 아니라 짧게 노래까지 불러 반가움과 친근감을 더했다.

해외 스타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KBS 2TV '연예가중계' 등 각 방송사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이 모두 사라지면서 예능프로그램이 자리를 이어받는 흐름이다. 스칼릿 조핸슨의 영상 메시지도 마

찬가지다. 영화 관련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주로 공개해온 '그리팅'(인사) 영상을 '유퀴즈'와 협업해 대체했다.

특히 '유퀴즈' '놀면 뭐하니?' 등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해외 영화·음악 제작진 사이에서 '섭의 1순위'로 통하고 있다. 연예대상 15회 수상, 예능방송인 브랜드평판(한국기업평판연구소) 1위 등 각종 지표로 입증된 유재석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셈이다.

'유퀴즈'를 연출하는 김민석 PD는 6월 30일 "'유퀴즈'를 포함해 유재석의 프로그램은 화제성은 물론 2049시청률(20~49세 남녀시청자 대상 시청률)도 높다"면서 "덕분에 영화 등 홍보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제작진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쏠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무명 가수들의 아름다운 반란

'싱어게인' 출신 이무진·이승윤 일약 스타로 '보이스킹' 우승 리누, 가이드가수서 인생역전



이무진



이승윤

무명 가수들의 '반란'이다. 이무진, 이승윤, 리누 등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에 걸친 무명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어엿한 '유명 가수'가 됐다. 이들은 최근 각 방송사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으며 이름과 얼굴을 동시에 알리고 있다. 데뷔 이후 오랜 시간 '대타 가수', '얼굴 없는 가수'로 불린 끝에 최근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리누는 6월 29일 방송한 MBN 예능 '보이스킹'에서 10년의 무명 설움을 벗었다. 이날 결승전에서 김종서, 조장현, 박강성, 최정철 등 쟁쟁한 가수들을 제치고 우승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0년 '내게 와줘'로 데뷔한 그는 김범수, 엠씨더맥스, 바이브 등 가수들의 가요곡에 참여했지만 자신의 음악활동으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는 이날 최종 우승한 뒤 "제 인생에서 진짜 1등의 영광을 얻은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엄청난 도전자들과 한 무대에서 피 땀을 흘렸는데 제가 1등을 하게 돼 최종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승윤과 이무진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을 통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승윤은 최근 신곡 '들려주고 싶었던'을 발표하며 "진짜 가수"로서 홀로 섰다. 2016년 '무얼 흠치지'로 가요계에 데뷔해 여러 곡을 발표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독특한 편곡과 가창력, 퍼포먼스 등으로 시청자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승윤에 앞서 신곡 '신호등'을 먼저 발표한 이무진은 최근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2'의 OST로 주자로 나서 인기를 과시했다. 그의 독보적인 목소리는 영화 '라디오스타' 수록곡 '비와 당신'과 어우러져 각종 음원사이트의 OST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정민 기자 anjoy@donga.com

## 연예뉴스 HOT 3

이병헌, 칸 영화제 폐막식 시상자로 선정



이병헌

배우 이병헌이 17일 제74회 칸 국제영화제 폐막식 시상자로 나선다. 한국배우가 칸 국제영화제 폐막식 시상자로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30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이 밝히며 "시상부문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헌은 주연영화 '비상선언'으로 비경쟁부문에도 초청됐다. 사상 초유의 재난상황에 직면한 비행기를 두고 벌어지는 재난 영화로, 이병헌과 함께 한재범 감독, 송강호·임시완이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한다. 송강호는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활약한다.

유명 걸그룹 멤버, 프로포폴 투약 혐의 벌금형

유명 걸그룹 멤버 A씨가 올해 초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 B씨는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진위, 한국 대표배우 200명 선정 글로벌 홍보



윤여정 손예진

윤여정·손예진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200명이 서울 도심에 얼굴을 내민다. 6월 30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한국 영화배우의 글로벌 홍보 캠페인인 '코리아 액터스 200'에 참여한 윤여정·송중기·손예진 등 200명의 사진을 이날부터 일주일에 20명씩 약 3개월간 서울 도심의 전자 광고판에 내건다고 밝혔다. 전시 장소는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 '시그니처 도산'과 메가박스 코엑스점 등 4곳이다. 영진위는 10년간 한국영화의 흥행과 독립영화의 기여도, 국내외 영화제 수상 내역 등을 바탕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남녀 각 100명의 배우를 선정했다.